



서길원 大記者 독자와 함께 詩 읽기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구나 가장 바라는 꿈은 '행복'일 게다. 성공도 사랑도 심지어 투쟁마저 그 궁극의 목적은 행복을 향한다.

오늘 이 시에서도 행복이 둘로 나뉘어진다.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경우와 너무 슬퍼서 행복하다고 하는 반어적 경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스스로의 청춘을 '허전하여 경망스러워진'다고 했다. 다들 가장 화려하게 보냈다고 말하는 청춘기를 그리 말하니, 청춘은 '일회용 용기에 남은 자장면'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문 바깥에 내다 놓고 돌아"선

다. 하지만 허망하다거나 슬프다고 해야 할 때도 "행복해서 눈물이 쏟아진다"고 한다.

화자는 어떤 의미에서 청춘을 쉽게 버려도 되는 일회용 용기에 남은 자장면에 비유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치열한 무엇'을 가지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행복하여 / 어쩔 줄을 모르던 골목길에선 / 껌을 뱉듯 나를 뱉고 돌아서다가," 이제 '행복하여'가 그 뜻과 반대인 '너무 슬퍼서'로 읽힘을 아셨으니 청춘을 의미 없이 보냈으니 껌을 뱉듯 나를 뱉었음을 두고...

'껌을 뱉듯 사랑을 뱉었다' 했으면 어울릴 듯하나, '껌을 뱉듯 나를 뱉었다'는 표현

엔 갑자기 전해진다.

한때 필자도 그런 적이 있었음으로. "오늘은 / 행복하여 밥이 먹고 싶어진다 / 인간은 정말 밥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 하도 감격스러워 밥그릇을 모시고 팔팔 / 눈물을 쏟는다" 어떤 이들은, 아니 어떤 여인들은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큰 대접에 나물과 고추장을 왕창 넣고 밥 비벼 먹으면 좀 힘이 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밥이 치료제요 영양제가 된다. 그러나 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청춘의 비애에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까. 밖에 내놓은 짜장면 그릇 같은 청춘을 수거해가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어운을 남기고 사라진다.

▶김소연(1967년생) 경주 출신으로 1993년 '현대시사상'을 통해 등단.

행복하여

김소연 작

허전하여 경망스러워진 청춘을 일회용 용기에 남은 자장면처럼 대문 바깥에 내다 놓고 돌아서니,

철 지난 외투의 구멍 난 주머니에서 도르르르 떨어져 구르는 토르르 같은

행복해서 눈물이 쏟아진다 행복하여

옛사람도 만났다 오늘은 행복하여 밥이 먹고 싶어진다

어쩔 줄을 모르던 골목길에선

인간은 정말 밥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껌을 뱉듯 나를 뱉고 돌아서다가,

하고 감격스러워 밥그릇을 모시고 팔팔

눈물을 쏟는다 <1996년>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아외활동 시 온열질환을 조심하자



장 종 혁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

가운데, 폭염활동 예방수칙과 이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을 알아보고자 한다.

폭염활동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 복장은 밝은 계열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 ▷ 더운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양산 등을 활용해 직사광선을 피한다. ▷ 땀이 흘릴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온음료나 시원한 물로 수분보충을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시중인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체온과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심한 두통, 빠른 맥박과 저혈압이 있으며 혼수와 같은 의식 장애를 동반하기도 한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에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 몸에 물을 묻혀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은 기도흡인 및 폐

색의 위험이 있어 절대 금한다.

열탈진은 열로 인해 과도한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증상으로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근경련, 메스꺼움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있다.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수분보충을 하고, 1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치료를

받는다.

아외근로자, 고령자 및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더욱 온열질환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비교적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계절질환들. 폭염 속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으로 온열질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며 지혜롭게 무더위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아파트 화재 각별히 주의·예방을



조 원 군

/여수소방서 봉산119안전센터

구가 없는 특징을 가지므로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화재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패닉현상이 발생해 주변 상황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심한 공포심을 갖게 돼 상황판단능력이 평소의 50% 이하로 저하된다.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는 물론 건강한 성인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이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주택화재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화재다. 우리 가정에는 많은 전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기들의 합선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

기기의 부식된 전선은 없는지,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 기구를 꽂아 사용하고 있는지, 불량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려야 한다.

그다음 원인으로 가스 화재다. 가스 화재는 가스가 누설돼 방치된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의 규모에 따라 불이 작을 때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이용하거나 담요에 물을 적서 덮어서 소화해야 한다. 전기화재 시에는 전기 개폐기를 차단하고 가스 화재 시에는 밸브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그다음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

로 대피해야 하고 비상벨을 울려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 아파트의 베란다에는 쉽게 파괴가 가능하도록 설치된 경량 칸막이가 있어 유사시 이 부분을 파괴하고 옆집으로 통하도록 건축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이곳에 가재도구나 선반·세탁기 등을 설치해 사용함으로써 비상구로 사용할 수 없게 돼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해 어떻게 피난해야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이웃과 함께 피난에 장애가 되는 집기류 등을 제거해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온열질환 발생이 예상된다.

폭염은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지속되는 기간과 온도에 따라 특보(주의보, 경보)가 발효된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된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이 달 1일까지 전국에서 사망자 1명을 포함해 3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당분간은 비 예보가 없어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image and text: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지국안내: 총장, 무등, 동부, 화동, 광천, 화정, 금호, 쌍촌

- 상무, 서부, 송암, 능성, 진월, 봉선, 중앙, 중흥, 양산, 운암

- 오치, 문흥, 일곡, 동문, 두암, 청단, 신창, 월곡, 송정리

- 지사안내: 목포, 순천, 광양, 청단, 나주, 담양, 곡성, 구례

- 보성, 화순, 영광, 영암, 장흥, 신안, 강진, 장성

- 무안, 여수, 함평, 영암, 진도, 해남, 광산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주소,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지사(취재본부), 인터넷 참여, E-mail